

# 환벽당

## 달빛 아래 문화잔치 즐겨볼까



가야금·거문고 등 국악기로 연주하는 '사미인곡', '자마탄', '장진주사' '소정빙린' 등을 선보인다.

김씨의 작곡 발표회가 의미 있는 건 가사문학이 만들어진 '현장'에서 직접 음악을 나눈다는 점이다.

외지 관광객들이 끊임 없이 찾는 곳이 가사문화권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자와 원림을 둘러보

김락겸씨와 주홍씨의 소품 등도 전시된다.

이번 발표회에 함께 참여한 이들은 식영정·소쇄원·명옥헌·환벽당 등 광주와 담양에 산재한 가사문화 유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다.

외지 관광객들이 끊임 없이 찾는 곳이 가사문화권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자와 원림을 둘러보

계획이다.

지금까지 식영정 등 일부 정자에서 문화 행사가 열리기는 했지만 대부분 예술인들을 초청해 단순히 연주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터라, 다양한 문화 장르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김현옥씨는 "워낙 가사 문학을 좋아하는 데다 작곡을 위해 식영정 등 정자를 많이 찾았는데 이번에 환벽당에서 공연을 가질 수 있어 좋다"며 "가사 문학이 태어난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10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31일 김현옥씨 국악 작곡 발표회

#### 음악·설치미술·도예·차·음식 등

#### 다양한 문화장르 어울리는 무대

깊다.

이번 음악회는 철학자 성진기씨가 폐를 잡았고 미술가 주홍씨는 무대를 꾸민다. 도예가 김락겸씨는 환벽당 오르는 계단과 주변에 청사초롱을 매달고, 도예 작품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음식연구가 김순덕씨는 향기로운 연잎차와 메밀차를 내놓는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독특한 아트 상품들도 만날 수 있다. 김현옥씨가 직접 그린 악보 그림으로 만든 머그잔과 메모지 등을 판매하고 도예가

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아쉬웠다. 이곳을 단순히 선조들이 작품을 만들었던 곳이라는 '과거' 속 풍광이 아닌, 선조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듯이 함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현재'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음악회가 단발성 문화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 지원사업 등에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작곡가 김현옥씨

시월의 마지막 날, 가을 달빛이 아름다운 정자 환벽당에서 은은한 국악 선율이 흐른다. 환벽당 가는 길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연잎차 향기가 가을바람에 날린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환벽당이 음악과 미술가, 음식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작곡가 김현옥씨는 작곡 발표회 '환벽당의 달빛 오딧세이'를 오는 31일 오후 7시 무등산 자리, 환벽당(광주시 기념물 1호)에서 갖는다.

전남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피시피 인터내셔널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지난해 다시 전남대 국악과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할 정도로 우리 음악에 애착을 갖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아쟁·대금·

## 예술의 거리, 예술이 '꿈틀꿈틀'

### 활성화사업 시동… 고미술 강좌·전시회·댄스공연 등 열려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특화지구 활성화사업'이 다양한 강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미술 골동품' 강좌는 매주 월·수요일 오후 2~5시 상계갤러리 2층에서 진행 중이다. '골동품을 알면 역사와 둘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골동품 강좌는 고재승씨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멀동풀 감정의 사례와 감정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미술 강좌는 노기육씨가 진행한다.

공연 강좌는 11월까지 매주 토요

일 오전 10시에 예술의 거리 창작스튜디오 등에서 열린다. 김도연씨가 한지공예와 관련한 이론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두 강좌 모두 프로그램이 끝나면

광주문진위가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궁동 삼호빌딩에 동지를 틀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전시회는

31일까지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신양호·최명자·신승택·박성완·신연

진씨로 구성된 '2G(2Generation)'

와 팜킨 빙, 트란 투에 나 등 베트남

작가팀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 1일과 8일 중앙초

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가요페스티벌

과 댄스 페스티벌 행사가 열린다. 가

요페스티벌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31일 궁동예술극장에서 예선을 갖는다. 댄스 페스티벌은 6일 까지 접수를 받은 후 7일 역시 궁동 예술극장에서 예선을 거칠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예술의 거리·전시·공연 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며 이후 '아름다운 가로, 즐거운 거리'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연다.

한편 사업단은 나인갤러리에 예술의 거리 문화지도, 스토리텔링 관련 자료와 흥보물을 비치한 '예술의 거리 인포센터'를 오픈했다. 062-225-5750, www.gaf.or.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화가 하철경 서울 개인전

### 27일까지 서울아트센터

남종희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화가 하철경(호남대 미술학과 교수)씨가 27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하씨는 사계절의 특징이 잘 표현된 산수화를 선보인다.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필선으로 북한산, 상계사, 천운사 등의 산과 고즈넉한 산사의 풍광을 표현한 작품이다.

전통 화법을 따르면서도 생기발랄한 색채와 리듬을 몇입혀 산수화의 단조로움도 피했다.

또 여백 없이 촘촘하게 나무와 나뭇잎, 돌 등의 사물을 등장시켜 긴장감 있는 화법을 구사했다.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와 세종대학과 대학원 미술 학과를 졸업한 하씨는 한국미협 이사장을 역임했다. 프랑스 파리문화원, 뉴욕 퀸즈미술관, 독일 베를린 구소 등지에서 전시를 열었고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침수림'

대상(1999년), 전라남도 문화상(1999) 등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보성 덤벙이 보러 오세요"



송기진 작 '충강'

백토 물에 아예 덤벙 빼뜨려 백토를 입힌 한국의 덤벙분청(이하 덤벙이) 차 그릇은 다도(茶道)의 나라 일본에서는 국보로 떠받들어진다. 그릇에 차를 떠라 놓으면, 칭호지에 달빛이 어리둥 푸른빛이 그릇의 표면에 스며들어 오묘하고, 풋풋한 느낌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보성 덤벙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23~29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지략의 무등현대미술관 '보성 덤벙 분청 차 그릇 전'.

'녹차의 고장' 보성군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는 김기천(청광도예원 대표), 박노연(이을도방 대표), 송기

### 23~29일 무등현대미술관

#### '보성 덤벙 분청 차 그릇 전'

진(보성디원연구소 대표), 이해진(도예공방 휴 대표), 조기증(운곡요 대표), 흥성일(흥성일도예연구소 대표)씨 등 6명이 참가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작가들은 전통 기법을 토대로 현대적인 감성을 결들이 다양한 차 그릇을 선보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멋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보성은 용기, 도자기 등 전통공예에 발달했고, 보성 차 그릇은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보성덤벙이도요지 지표조사, 한·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덤벙이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문학 살찌우는 사투리 살려야"

### 문학의 집 '문학어의 생명' 심포지엄

이문구의 '관춘수필'이나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백산백간'의 공통점은 모두 작품 속에서 구수한 지역 사투리를 구사했다는 것이다.

(여자연)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사장 김후란)은 이렇게 문학과 언어 생태환경을 살찌우는 순도 높은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짚어 보기 위해 23일 '문학어의 생명'이라

는 주제로 '2009 서울문학인대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서는 시인 겸 전임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경북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모든 창조적인 문학 언어나 방언은 고도의 표현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며 방언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라도 방언이 쓰인 서

정준의 시 '백석 시집에 관한 추억'을 인용하며 "방언의 사용은 표준어라는 규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 또 한껏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안일한 김상주나 자아분열적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라도적 언어풍경의 윤기를 발하게 해주는 문학의 언어는 주술이요, 언어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문학인대회에서는 문인 203명이 고향 사투리와 좋아하는 사투리를 엮은 책 '그리움의 말'을 찾아서'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초호재국내국제결혼상담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옆  
지사장모집  
나비드 결혼정보  
(062)372-7740

토대혁(투다리)수원지구점  
광신구수원동 인디우체국 옆 식당2층  
최신형 할리우드 디자인원비아한국분기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모십니다  
(062)575-3949

월출도사·백마장군  
인생상금·병점·시주·궁합·부적  
효동·초등교·일방로  
(011)602-5902

이철기세무사  
쌍촌동 호남대 건너  
친철한 세무사  
대표 이철기  
(062)383-1232

신신예술의집  
동구궁동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김숙경 토탈 패션  
동구학동 흰여울 앞 흰먼시마@상가  
토탈패션수복, 이세사리, 구도기방 등  
대표 김숙경  
(062)228-6858

코사마트(조대점)  
서석동 조대 정문 앞 시거리  
저렴한 가격의 쇼핑을 코사마트에서  
대표 박준호  
(062)224-3669

월빙하우스  
서구화정동 광고후문 앞  
화장실·욕실·변기·세면대·기타용품  
월빙하우스의 특별한기술로 스플링해드립니다  
(062)381-8743

장군갈매기살  
동구 블로동 신동이모텔 주차장 옆  
곰탕·수육·추어탕·청국장  
(062)222-9089

호남샷시·유리  
복구 응우동  
하이샷시·조립식판넬·방법창  
방충망 제작전문  
(062)575-5140

24시사랑하기  
부부생활용품의 모든 것 각종기구  
조루증 해결 복기콘돔, 흥분유도  
제품, 전회주문시 신속배달  
(062)264-7890

학국불교국제종회성암  
복구 우산동 말비우시장 건너편  
익손·시주·궁합·매매계약·체니리  
주지 영월 합장  
(010)2324-8011

고시학원사  
동구대의동 77번지  
수험서적전문, 인터넷서점  
www.gosi365.net  
(010)7723-8260

아이지미술복구광신지사  
복구우산동 현대 1차@106동 2F  
정밀화·인테리어·인테리어·인테리어·인테리어  
가장신집 : 교육지도부·부수제·교수·교수·교수·교수  
(062)382-7179

햇살가득  
서구월동 건강랜드인근 면봉길 옆  
추어탕·매기탕·꽃닭 전문  
단체 예약 손님 흰영  
(062)385-3238

연안부두  
서구 쌍촌동 동령증 후문  
생선구이·글